

특별취재

체불입금 집중 지도기간 운영

군산고용노동청, 고의로 지연 상습적 체불 사업주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불황에 따른 근로자 체불입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고용노동청(지청장 금정수)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관내(군산, 부안, 고창) 체불입금 발생현황은 총 623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1588명, 금액은 75억 3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658개 사업장 1544명, 66억4000만원 보다 사업장 수는 35개 줄어들었지만 근로자 수와 금액이 각각 44명, 9억2700만원이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체불액이 40억 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7억4000만원,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6억9700만원, 도소매음식숙박업은 4억9200만원, 운수창고통신업

1억9700만원, 기타 3억1500만원 순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 29인 미만 사업장이 23억2800만원, 5인 미만 21억8800만원, 100인 이상 299인 미만 16억1300만원, 30인 이상 99인 미만 13억6900만원, 300인 이상 499인 미만 2900만원, 500인 이상 300만원이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전체 체불입금의 약 60%를 차지하는 등 경기불황에 따라 소규모 하청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산고용노동청은 오는 13일까지 '체불입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불입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산고용노동청은 이 기간중

지청 내 체불입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입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을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낭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주요도로변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

추석을 맞아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낭산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환)가 1일 관내 주요도로변과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낭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살기 좋은 낭산면을 만들기 위해 매년 추석 전에 무연고묘지와 도로변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주민자치위원 20여명은 이른 아침 낭산면사무소~상단마을의 주요도로변과, 오동정 마을 무연고 묘지 30기의 제초작업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이환 위원장은 "추석을 맞아 주민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제초작업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방목객들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환경정비에 힘쓰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보건소 치매예방 프로그램 운영

군산보건소 치매관리센터는 치매 조기예방 및 치료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보건소는 이달부터 60세 이상 어르신 중 인지기능 저하 및 정상군 20명을 선정해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태블릿 PC를 활용한 주의력·집중력 훈련 프로그램인 스타트 기억광교 교실을 운영한다.

스마트 기억광교 교실은 자능력, 집중력 및 기억력, 실행기능, 인지재활제, 인지장애를 위한 재활프로그램과 시·지각·공간능력 등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신바람 실버라인댄스 교실을,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기억충진교실을 운영하고, 치매 가족지지 프로그램인 헤아림교실을 운영해 시민 모두가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중앙지구대, 치안간담회

익산경찰서(서장 김성중) 중앙지구대에서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대국민 치안민족도 향상 및 여성 상대 범죄 예방을 위해 지난달 31일 모송자율방범대 회원 30명과 치안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치안간담회는 긴밀한 민·경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최상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마련된 동시에 수시로 지역·시설에 대한 현장 진단을 병행하기로 약속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 나운2동, 복지허브화 구축 '희망내비 나눔캠페인' 협약체결

군산시 나운2동은 1일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종성),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김경식)와 '희망내비 나눔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의 복지허브화를 구축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모금된 성금에 대한 관리 및 집행은 나운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모금된 기부금 배분을, 나운2동 주민센터는 저소득층을 위한 성금 사용범위 적정성으로 동(洞) 복지허브화 기반을 마련했다.

이종성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이번 협약의 우수사례가 전 지역으로 확산되어 사랑의 손길이 더욱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 10월 2일 개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매년 캠페인 일환 4km 미니코스로 구성

군산시는 오는 10월 2일 은파호수공원에서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하는 2016 군산 국제 어린이 마라톤을 개최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11년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다섯 번째 생일을 맞을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자'는 의미의 H5(하이파이브) 캠페인을 시작한 이후, 매년 캠페인의 일환으로 4km 미니코스로 구성된 국제 어린이 마라톤 대회를 열고 있다.

참가자들은 마라톤 코스 1km마다

설치된 4개의 체험존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 5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원인과 해결책을 배우며 캠페인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가족과 함께 부엉이가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다.

2016 군산 국제 어린이 마라톤은 아동과 가족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참가비(1인당 1만원) 전액은 에티오피아 란파로, 마라코 지역의 보건요원 교육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차정희 군산시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마라톤에 많은 가족들이 참여

하여 지구촌 5세 미만 영유아 사망과 같은 국제문제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뜻 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 군산 국제 어린이 마라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 2000명 선착순 모집으로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이브더칠드런 호남지부(063-254-1177)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9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나중소 선생' 6.25 전쟁 호국영웅 '김동석 대령'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이우실)은 국가보훈처에서 9월의 독립운동가에 나중소 선생과 6.25 전쟁영웅에 김동석 대령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나중소 선생은 경기도 고양군(현재 서울 정릉)출신으로 대한제국 무관학교를 수학과 진위대 부위(副尉)로 재직 중 일제에 의해 군대가 강제해산 당하자 민주로 망명하여 대한군정서(북로군정서) 등에서 무장 투쟁을 벌였다.

1919년 3월 선생은 북간도 왕청현에서 서일 등 대종교인을 중심으로 조직된 대한정미단의 교관으로 초빙되어 수백 명의 무장 독립군을 양성 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북로군정서로 개편되자 참모부장에 임명되어 사령관 김좌진을 보좌하며 부대를 이끌었다.

선생은 북로군정서의 사면연성소 교수부장으로 300여명의 독립군 사관을 양성하였으며, 청산리 대첩에 참전하여 백운령과 천수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렀다. 정부는 독립군 양성과 청산리

대첩에서 무장투쟁을 벌인 나중소 선생에게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김동석 대령은 1948년 12월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입교하여 1949년 졸업과 동시에 소위로 임관, 수도경비사령부 제17연대 11중대장으로 임명되었다. 196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 제 15사단 45연대의 화력장 전투에서 적군을 궤멸시키는 혁혁한 공적을 세워 전 연대원이 1계급 특진의 영광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950년 9월 김동석 대령은 미8군 정보연락장교로 파견되어 서울 탈환작전을 위한 첩보업무를 담당하였다. 매사에 성실하면서도 투철했던 그가 수집한 적군의 핵심 정보는 맥아더 장군에게 직접 전달되어 아군의 서울 탈환과 북진 작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맥아더 장군에게 신임을 얻었던 그는 유엔군 내에서 한국군의 정보작전 능력을 인정받는 계기를 올렸다.

/익산=정양원기자



원광대, 호남·제주권 창업동아리 교류회 최대수익상 수상

창업동아리 S.O.S 팀 천원 해충차단 물질 교체화 오래 쓸 수 있는 방법 고안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학생 창업 동아리가 군산에서 열린 2016 호남·제주권 창업동아리 교류회(Venture Club Forum-지역사회 창업문화 확산을 위한 올담 베품시장)에서 최대수익상을 수상했다.

호남·제주권 창업교육거점센터와 군산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주관으로 지난달 30일 열린 이번 교류회는 창업동아리별 아이템을 군산 공설시장에서 판매해 사업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제 창업현장에서 세일즈 능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호남·제주권 대학 우수 창업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교류회는 호남·제주권 12개 대학에서 학생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학생들의 제품관매로 활기를 띠었으며, 원광대는 천원 해충차단제를 판매한 창업동아리 S.O.S 팀(경영학부 4년 한현진, 한약학과 4년 강정수, 정보·전자상거래학부 4년 정영호)이 1등 상인 최대 수익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S.O.S 팀은 천연 해충차단 물질을 고



체화해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여름철 외에도 벌초, 등산, 낚시, 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한 점을 인정받았으며, 특히 경영학부, 한약학과, 정보·전자상거래학부 등 팀원들의 전공지식을 융합한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아이템을 도출해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팀 대표 한현진(경영학부 4년)씨는 "다른 대학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직접 제작한 제품으로 최대수익을 달성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창업동아리 활동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을 통해 청년의 열정을 보여 드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농기센터, 발동사 기계화 촉진 채소이식기 연시회 개최

익산농업기술센터는 1일 오전 10시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 부지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소병홍 익산시의정원을 비롯한 시의원, 농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채소이식기 연시회를 개최했다.

채소이식기는 농작업 기계화가 미흡한 발동사에서 일손이 많이 필요한 채소묘종 이식작업을 자동화한 농기계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국내외 5개 업체에서 제조·판매하고 있는 최신 채소이식기 9종을 선보였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채소이식기를 이용해 양파, 배추, 옥수수, 고추, 대파 묘종을 심었다.

농업인들은 채소 이식기에 큰 관심을 보이며 호평을 쏟아냈다.

연시회 참가업체에 따르면 개인별 수확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채소 이식기 1대의 일일 평균작업량은 대개 10,000㎡이상이며, 이식기 1대가 성인 10여명의 작업량을 수행할 수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지역은 최근 발동사 면적이 빠르게 늘고 있으나, 발동사는 농사에 비해 노동력 투입이 더 많고 기계화가 덜 되어 있어 농촌의 고령화와 일손부족문제를 겪고 있는 농촌에서 발동사 기계화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번 연시회가 다양한 채소이식기 정보

를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연회에 참석한 농업인 최순용(40, 용안면)씨는 "수작업으로 묘종을 심으면 인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데 이식기를 활용하면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없애 수월하게 묘종을 심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앞으로 발동사 기계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농촌고령화와 일손부족 문제를 농작업 기계화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쓸 것"이라며 "발동사용 농기계 보급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지역 발달장애인 시각예술작품 전시회 개최

군산장애인종합복지관 과 구세군 군산목양원은 오늘부터 11일까지 월명동 소재 산돌갤러리에서 군산지역 장애인들의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이상한 나라 시각예술작품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시각예술작품 전시회 '이상한 나라'는 발달장애인들이 그들 각자 고유의 시선과 해석을 통해 다양한 필감 및 색감과 기법으로 그림, 조형물, 사진 등의 시각예술작품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작품활동에 매진하는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전시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가 겪었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을 건널 수 있도록 기획했다.

이를 통해 비장애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장애인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홍 군산시 복지지원과장은 "이번 연합전시회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비장애인 간의 공감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며 "장애를 딛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다같이 지켜 봐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근기자

호원대학교 야구단, 신임 강효섭 감독 임명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야구단이 1일 강효섭(42·사천) 현 코치를 새로운 감독에 임명했다.

강 감독은 1992년 군산상고를 졸업 후 쌍방울 레이더스에 입단하여 선수로 활약했으며 현역에서 물러난 뒤 2005년부터는 호원대 야구단 코치로 근무하며 본격적으로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지난 2012년 선수생활과 학생 지도로 미웠던 학업을 호원대학교에서 마치

면서 모교 출신 감독이라는 또 다른 타이틀을 얻게 되었으며, 이후에도 지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체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효섭 신임 감독과 나창기 전 감독의 인연은 강 감독이 군산상고에 재학할 당시 나창기 감독의 지도를 받았던 사제관계로 호원대 지도부 생활 10여년을 함께하면서 이들의 특별한 인연은 주된 야구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신임 강 감독은 "학생들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데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산=문정근기자

정현을 익산시장, 주얼리산업센터 입주기업 간담회

정현을 익산시장은 1일 익산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주얼리산업센터에 입주기업들을 초청한 최문경 대표(중국황도에진공예품유한공사), 구자원(주)인체인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정 시장은 주얼리산업센터에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주얼리단지 탄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 대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현재 중국지역에 진출한 주얼리기업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유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최문경 대표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중국으로 진출한 주얼리기업들이 베트남 등 동남아지역으로 옮겨가거나 사업을 폐업하는 등 최근 상당히 어려움이 처해 있다"며 "그나마 중소기업 주얼리 기업들이 선전하고 있다고 했다.

정현을 시장은 "민생기 기업유체에 올인하고 있는 익산시는 주얼리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80% 입주율을 보이고 있는 주얼리산업센터에 대해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익산=정양원기자